

(공각기동대 S.A.C 2gig : 기말레포트)

난민갈등 작품으로서의 공각기동대 고찰과 구체적으로 보완할 점과 대안제시

2012102818

일본어학과 김주안

I. 서론

공각기동대 2GIG 작품은 카미야마켄지와 그와 함께했던 스태프들의 1기 성공을 바탕으로 추
가적으로 제작된 TV방영 애니메이션이다. 1기의 대성공은 후속작의 시작 전부터 후속작에게
이미 거대한 팬 층을 전달해 주는 것과 동시에 후속작에 들어서서 비교 평가가 이뤄질 수 있
다는 큰 부담감을 주는 요소가 되었다. 기존의 스태프만으로 전작의 한계를 넘기 힘들거란 생
각이 반영되어, 카미야마켄지 감독은 그의 스승 격으로 알려진 오시이 마모루를 스토리 감독
으로 초빙한다. 2GIG의 난민 작품으로서의 성격이 오시이 마모루가 카미야마켄지에게 난민을
다뤄보자고 제의함으로서 시작된 일이니만큼, 오시이 마모루와 카미야마켄지의 감독을 같이
이해해야만 해당 작품을 이해하기 수월하리라 본다. 카미야마켄지와 오시이 마모루의 공통점
은 둘다 사회를 비판하는 작품을 주로 만든다는 점에 있다. 해당 작품에도 그러한 성격이 분
명하게 드러난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작품의 분위기가 카미야마켄지는 비교적 밝게 끝나는
편이라면, 오시이 마모루는 '무겁고, 복잡하며, 애매하고 어둡다'라는 평이 따라다니는 감독이
라는 점이다.¹⁾ 확실히 카미야마켄지 작품의 전작(공각기동대1기)의 성격대비 난민 갈등을 다
루는 방식(난민의 지도자인 코우제가 비현실적인 난민을 데리고 네트워크로 이전하려는 상식
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설정)과 결말 부분(미국에 의한 코우제의 죽음)에 있어서도 오시이마모
루적인 성격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여진다. 오시이마모루가 애매하고 어렵게 작품을 구성하
는 이유는 사람들이 해당부분을 바라보는 본인의 관점을 직접 제시하기 보단 관객이 해당 작
품의 현상을 스스로 해석해 나갈 수 있게끔 하려는 의도라고 말한 바 있다.²⁾

사실 필자는 2004년도라는 앞선 시기에 난민을 등장시켜 난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감독과 스태프의 시도에는 박수를 쳐주고 싶다. 사실 난민 문제는 현시
대 2018년에 이르러서도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막상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 많이
주제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사실 난민에 대한 지원활동이 상당히 미
숙한 사회라고 보여진다. 일단 난민 유입자체가 거의 없다.³⁾ 그런 만큼 유럽과 같은 난민과
의 본격적인 갈등이 실제에서 다뤄지는 일도 거의 없다. 이것은 내국민 입장에선 당장에 평화
로워 보일지 몰라도 우리 역시 언제나 난민이 될 수 있는 가능성(환경 난민이나 경제적 난민
의 가능성, 심지어 전쟁 난민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을 고려한다면, 단지 난민을 배제시킴으
로서 난민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지나치게 근시안적인 시각이라 보여진다. 공각기동대

1) 한창완외 22명 / 세계애니메이션 백과/2004년

2)황혜림 /2001.1.「오시이 마모루 인터뷰」/《씨네 21》 286호/p 50쪽.

3) 호사카유지/(일본은 지금)난민정책과 외국인 수용정책 칼럼/ 이투데이/ 2018.07.20

가 난민을 다룬 미디어의 초기작이라면 이제는 좀 더 발전적인 난민 작품이 탄생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필자는 분명하게 느끼고 있다. 본 논문은, 그러한 현시대를 반영하는 난민 작품 활동을 진행해갈 앞으로의 노력들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이전 난민 작품의 공각기동대에 대한 비판 분석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작품 활동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바이다.

II. 본론

해당 작품의 작중 배경은 2030년대로, 인간은 전부 기계화 되어있고, 두뇌는 전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있다. 국제 정세적으론 동아시아권에서 제3차 대전이라고 불릴만한 큰 전쟁 후 대만과 북한 난민이 일본에 유입되게 된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해당 정권의 실세인 권력기관인 내청이 난민에 의한 테러가 아닌 내청의 조작에 의한 테러(테러의 주동인물인 주요 11명의 두뇌를 해킹해서 그들이 테러행위를 하는 것이 난민을 위한 일이라 믿게 되는 바이러스를 심음)가 일어난다. 이러한 정보조작과 테러행위(막상 난민에 의한 테러가 아님에도 대다수 국민들은 난민에 의한 테러로 오해하기 쉽다.)는 난민과 국민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 이렇게 멀어진 관계로 인해 난민 배척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발생한다. 그런 국민의 지지를 뒤에 얹고 일본 정권은 우경화되고, 난민 지원금의 대다수가 국방비로 돌아가 군수산업이 활성화되고, 자신들은 권력을 이어나가게 되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 내청의 의도이다. 그런 내청에 대항하는 난민 지도자 코우제와 난민, 이러한 내청과 난민의 전쟁을 막고자 하는 공각기동대. 공각기동대 2GIG '개별의 11인'은 이러한 세 집단의 갈등을 다루는 작품으로 사실상 난민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작품이다. 그러나 작품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난민 작품으로서 상당히 아쉬운 면들이 드러난다.

(2-1) 해당 작품은 조작된 테러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다. 현재 유럽사회를 이러한 과정과 비교해 볼 때, 유럽사회 역시 정치적 우경화와 언론 미디어의 난민 인식 악화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 보여진다. '개별의 11인'은 정치적 우경화와 언론 미디어에 의해 난민에 대한 인식이 얼마만큼 악화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훌륭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⁴⁾ 그러나 테러로 인한 갈등이라는 점에서, 난민과 국민의 갈등의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지 못한 면도 있다. 테러가 없기 전 난민과 국민의 갈등의 양상은 어떠한지가 다뤄지지 못했다. 현실의 갈등은 테러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으며 현실에서 테러는 그러한 갈등의 표면적인 사건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테러 이전의 갈등도 생생하게 다뤄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갈등에는 국민과 난민 서로에 대한 이권 갈등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이렇듯 갈등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다보니 갈등의 배경이 되는 난민의 참혹한 실상이 너무 짧게 그려져있다. 난민은 보통 실제의 국제사회에서 이권갈등에서 패배자의 위치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림으로 읽는 유럽의 난민)⁵⁾이라는 책은 실제 구호현장에서 유럽 난민의 실상을 몸소 느끼면서 쓴 책이다. 여기서 마주하는 난민들은 텐트에서 살고, 식사와 식수가 부족한

4) 판카지 미슈라 / 분노의 시대 : 현재의 역사 / 2018 참고

5) 케이트 에번스 / 그림으로 읽는 유럽의 난민 / 2018.03

채로 생활하며, 일자리도 부족하고, 정부 경찰들에게 맞기도 하고 거주지를 빼앗기기도 한다. 왜 공각기동대는 ‘그림으로 읽는 유럽의 난민’처럼 난민을 생생하게 그려내지 못했는가를 생각해본다면, 그것은 일본에 난민이 현재 상당히 극소수밖에 없다는 점과 2004년도라는 제작시기가 유럽사회의 난민과 국민 갈등을 분명하게 그려내기 어려운 시기였다는 점이 있을 수 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제작 시기적 한계가 극복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의 현존하는 난민을 그려내는 작품이 되려면, 난민의 실제 생활모습과 그 참담함을 최대한 반영하는 작품이 탄생해야 할 것이다. 본 작품이 난민에 대한 평화적인 사상을 그려내는 작품임을 감안할 때, ‘난민 고통의 부재’를 해결하는 과정이 들어간다면, 관중들은 실감나는 난민 고통에 공감을 할 수 있게 되고, 작품의 주제의식인 난민에 대한 평화적인 사상에 보다 더 공감할 수 있으리라 본다.

(2-2) 공각기동대의 난민작품으로 두 번째로 아쉬운 점은 난민의 정체성이 잘 반영이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난민의 정체성인 집단 문화라던가 종교, 철학이나 가치관을 다뤄볼 필요가 있다. 우선 애니메이션에선 전적으로 난민의 이러한 정체성이 분명하게 설정되지 못해서 제대로 정체성을 설정한 것이 맞는지 비판할만한 텍스트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영상으로 제시되는 것은 전쟁 속에서 비교적 순박하게 살아갔다는 점만 확인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중 후반부에 난민에서 현자 측에 속하는 한 노인이 등장해 ‘코우제’의 지나치게 이상을 추구하는 모습을 꼬집긴 하지만 노인은 난민의 지도자라는 설정은 전혀 아니고, 난민의 틈 속에 숨어서 현자처럼 존재하며, 오히려 보통의 난민과 구별되는 존재로 보여진다. 실제 현실의 난민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양상으로 실재한다. 생계를 위해 외국에서 활동하는 경제적 난민도 있고, 자연환경의 악화로 외국에 이주를 한 난민도 있으며, 중국의 소수민족 같이 영토 강제 편입을 당해 소수민족 독립운동으로 인해 정치적 망명을 한 난민도 존재하고, 중국 파룬궁 사건처럼 정치적 탄압과 종교적 탄압으로 인해 정부의 탄압을 벗어나기 위한 난민도 존재한다. 애니메이션처럼 국가의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한 난민 역시 내전인지 외전인지 그리고 종교적 전쟁인지 영토분쟁인지 등등에 따라 천차만별의 난민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⁶⁾ 이런 난민에 대한 구체적 스토리텔링이 없이 난민이란 이름으로 묶어버린다면 우리는 난민에 대해 이해하기는커녕 오해하기 쉽다. 현실의 난민을 제대로 반영한다 말할 수 있는 작품이라면 이러한 난민의 정체성을 세분화하고 다양화하고 구체화해 난민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난민 문제에 핵심에는 이슬람과 개신교, 불교와의 대립과 공산권과 다양한 종교와의 대립 등이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러한 요구사항의 타당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3) 또한 애니메이션 내 난민과 국민은 주체성이 결여된 존재로 보여지기 쉽다. 난민 내에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는데 구지 ‘코우제’라는 일본인 지도자가 설정되어있다. 일본인 지도자를 애니메이션 내에서 설정함으로써, 일본인으로서의 난민에 대한 어떠한 직접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는 장점은 분명 있겠지만 그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동지도자로서 난민에 의한 지도자라도 등장 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애니메이션 내에선 난민군의 참모진으로서 존재하는 난민의 의견도 아예 전무하다. 난민을 사건의 중심인물로 함께 세우면 난민의 시각이 분명하게 들어갈 수 있고, 난민이 주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존재로 보여질 수 있다.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국민의 주체성 역시 부각되어야 한다. 사실 민주주의 사회는 국민에 의사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 현실의 정치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선 이상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대의

6) 김민철 / 국제난민 이야기 / 2012.12 참고

민주주의이다. 그러나 애니메이션에서는 난민 갈등이 해결되는 방식이 지나치게 소수의 영웅들에 의한 작업일 뿐이었고, 갈등 역시 난민과 내각의 대립이었지, 난민과 국민의 대립은 거의 드러나 있지 않다. 당연히 갈등의 해결과정에서도 국민은 드러나지 않는다. 전체주의적 모습을 반영하려고 그런 모습만 그려냈다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이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모습이라도 제대로 묘사했어야 한다. 오시이마모루의 다른 작품 '인랑'⁷⁾을 보게되면, 주인공 남성은 집단에 의해 자신이 사랑하는 소녀를 죽이게 강요받는 모습이 나온다. 남성은 집단에 의지에 저항하지 못하고(설사 저항했다 하더라도 함께 죽음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여진다.) 소녀에게 총을 겨눈다. 소녀에게 총을 겨누는 것이 설사 집단에 의지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엄격히 말해서 총을 겨누는 주인공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져야만 한다. 공각기동대 애니메이션 내에서 국민들 역시 지나치게 수동적인 존재로 그려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실제 정치만 보더라도 국민들이 다양한 의사반영을 하는 수단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본 사회는 과거 2차세계 대전 때, 천황제 중심에서 전쟁 중 원자폭탄의 폭발로 수많은 국민들이 살상된 바 있다. 천황과 소수의 정치가들에 의한 정치인 과두정치 체제가 결과적으로 실패함으로써 평범한 민간인까지 비참한 상황에 이르는 사례는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인 이상 분명한 의사표현이 요구됨을 유추하게끔 한다.

또한 주체성의 문제는 갈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일본인으로서 지도자가 된 코우제와 난민의 커뮤니케이션적인 갈등도 지나치게 극소화 됨 점도 아쉽다. '커뮤니케이션론'에서는 주고받는 대화는 항상 '빙산의 일각'으로 자주 비유된다. 커뮤니케이션에서 드러나는 주고받는 대화의 과정은 눈에 보이는 빙산의 표면이라면 커뮤니케이션으로 주고받아지지 못하는 나머지 내용들은 물 속에 잠겨있는 빙산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기에 항상 갈등은 커뮤니케이션으로 쉽게 해결되지 못한다. 난민이 자신들의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이라면 사실 상당히 난민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음에도, 이런 '빙산' 전체가 다뤄지지 못한 점이 아쉽게 여겨진다. 코우제가 단순히 난민의 마음을 읽고 갈등 없이(애니메이션 내에서 갈등이 코제를 의심하는 청년 한사람에 의해 한차례 등장하긴 하지만, 핵무기를 코제가 난민을 위해 반입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년은 코우제를 믿게 되며 너무나도 쉽게 갈등이 해소된다. 이 외에는 난민과 코제 사이에서 지도자가 되는 과정에 갈등이 전무하다.) 코우제가 난민 지도자가 쉽게 되는 과정은 지나치게 난민을 과소평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갈등이 커뮤니케이션 내에서 발생하고 또 해결되는 '당신들의 천국'⁸⁾처럼 참여한 갈등을 다뤄내면 보다 더 난민을 실재하는 존재로 이해하기 좋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작품으로서 다뤄내려면 실제 난민과 많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된다. 단순 미디어를 통한 방식은 왜곡이 많고 일부 독자층을 고려해 편파적인 편집이 이뤄진 상태가 되기 쉽기 때문이다. 매스미디어의 언론 조작 가능성에 대해 깊게 연구한 '노엄 촘스키'는 이미 매스미디어가 지배층과 결탁한 상태이며, 매스 미디어의 4번째 특성인 "의견의 말살"을 제시하면서, 합의가 얻어지지 않은 주장은 매스 미디어에서 말살된다고 언급한바 있다. 현재 대한민국과 일본의 언론들을 보면 다양한 언론사의 다양한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이미 난민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있고, 그것이 '국민의 의사'로 대변되고 있는 이상 난민 반대의 주장을 담은 기사만이 포털사이트나 신문사의 메인에 자리잡고 있다. 난민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으로서 미디어는 사실상 현대 한국, 일본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7) 오시이마모루 / 인랑 / 1999년

8) 이청준/ 당신들의 천국/ 1986년

Ⅲ. 결론

실재하는 난민을 다뤄내야 하는 난민 작품으로서 본론에서 난민을 둘러싼 테러이전의 갈등 표현 부재와 갈등의 배경인 난민의 고통 부재, 난민의 정체성 설정 미흡, 난민의 주체적이지 못한 태도 설정 등을 비판하며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난민갈등을 다뤄내는 난민 작품의 바람직한 위해서는 실재하는 난민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요구되며 그런 작품만이 우리 사회의 난민을 다뤄내는 지침이 될 것이라 본다. 추가적으로 우리사회에서 특히 난민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슬람이란 종교적 속성 때문이다. 난민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슬람이 현재 난민문제의 중심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지 객관적이고 냉정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